

## 하박국 1장

1. 우선 하박국 선지자의 당면한 고통은 무엇인가?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한다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함:** 본문 이전에 이미 하박국의 기도가 있었다. 부르짖어도,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 그럴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는 것'도 대답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었고 기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고통은 응답이 없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후자를 정답으로 고집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보는 시각을 조금 교정해야 한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2.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악이 득세함(2-4, 13):** 처음에는 자기 민족의 악함 때문이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하박국이 예언한 시기는 여호야김의 시대이다(BC 609-598). 여호야김 전후에 4개월짜리 왕이 있었고(여호야하스, 여호야긴) 그 다음 왕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여호야김의 폭정과 그로 인한 통치 계급의 불의가 판을 치던 때이다. 두 번째는 더 악한 이민족을 들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세상이기에는 우리는 모든 일을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선악이라는 잣대 위에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건득(득을 세우느냐 아니냐)이라는 잣대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한다.

3. 범죄 항목이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이다.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변론:** 정당한 토론이기보다는 말싸움(다툼)을 의미한다. 변론과 분쟁은 다툼과 시비로 번역하면 좋겠다.

4. 선지자가 '강포를 인하여 외쳤다.' 뭐라고 외쳤을까? '강포!' 혹은 '횡포!'

**살려주세요!:**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횡포'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5.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애타는 기도의 응답이 1:5-11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엇인가?

**공직한 갈대아인의 침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악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악독한 이민족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악한 이민족이 득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이다(참고, 사 45:1-4)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가 더욱 부패하게 되고 악이 세력을 얻는다.

6. 갈대아인들이 무서운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제 멋대로 설치는 인간들이기 때문(7: 자기로 말미암으며, 11: 힘으로 그 신을 삼는 자)** 야만, 성급, 독단, 거만, 과욕이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다. 하나님 없이 용감한 사람은 정말 무섭다. 어디로 될지 모른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와 어른을 무시하는 아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7. 갈대아인들을 표범, 이리, 독수리, 바람으로 묘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사납고 성급하다:** 그래서 결국은 득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을 불렀더니 자기 세상인양 날뛰다가 자기도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은 이런가보다!

8. 야구 용어에 도루라는 것이 있다. 도루를 시도하다가 너무 빠르게 달리면 베이스를 지나쳐서 죽는 수가 있다. 잘 달리고 죽는 것이다. 본문의 누구와 닮았는가?

**바람같이 지나치게 행한 바벨론:** 잘 한다고 너무 나대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대체로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다.

9.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으니(5-11) 하박국 선지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12-17)?

**아니다. 더 머리 아파졌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법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하시면서 대답 않으시는 하나님께도 아픔이 있다.

10. 차라리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박국은 다시 기도를 한다(1:12-17).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도 보기 힘든데(2-4) 악한 민족이 선민을 치다니(5-11)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런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선지자가 제시하는 근거 두 가지는 무엇인가?

1) **경계용이라면 몰라도(12):**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을 들어 선한 민족을 치신다는 것이 경계용(엄포용)일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구요? 매를 드는 시늉까지는 선지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매를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 수도 있다고 하신다.

2) **더구나 그 악한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낚시, 그물, 초망(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닌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는 것이다. 못한 자식이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한 두 번 했어야지!

11. 여호와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되는가(12)?

**일반성의 문제:**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도 있는데(신 33:27) 이렇게 포기하실 거라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애굽에서 불러내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선지자의 말이 맞다. 하나님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12. 바다의 어족, 주권자 없는 곤충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무기력하게 잡아먹히기 직전의 상태:**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아무리 범죤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민족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13. 결국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1)'의 요점이 무엇인가?

갈대아인의 무서운 침공이 있을 것이다.

## 하박국 2장

1. 1:2-3이나 2:1절을 보면 하박국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전적, 의분에 치를 떠는 모습이다. 불의를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열혈 청년이다.** 감히 하나님께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다니 버릇이 없다?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더러 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자세나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킨 전영창 교장...

2. 2:2-20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인데 너무 길다. 핵심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1)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 의인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고 악인은 아무리 득세하는 듯해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믿고 인내하라는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14)을 기대하며 여호와만 경배하라(20)는 것이다. 실제로 세상에는 악이 판을 치고 악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진리가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민족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특히 교회사에서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갈대아인들에게도 당연히 심판이 있다:** 아무리 악이 득세를 해도 길게 보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일 뿐이다.

3.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4)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이 말씀을 믿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표적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과 루터:**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롬 1:17, 갈 3:11, 히 10:38)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맹렬하게 죽이려고 한 것이나 루터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뛰쳐나와 종교개혁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뜻이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나는 것에 비유하면 어떨까?

4.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

**더딜지라도 기다린다(3):**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한 재난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이다.

5. 목시를 기록해야 하는 판이 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중요한 글을 기록하는 서판이다. 광고용으로 간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새긴 판처럼 '정한 때까지' 보존용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달리면서 읽나(참고, 렘 23:21)? 누가 달리지?

**빨리 전해져야 한다:** 달린다는 말에 '답히 나눈다, 전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파발이 달리듯이 달리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에 광고판을 세워서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판을 세워야 이 내용(4-20)을 다 기록하겠는가!

6.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지만 그들을 바다의 어족같이 취급하던 갈대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4)?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짓되다'고 판정했으면 끝났다!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더 구체적인 언급이다.

7. 신약에는 8복이 있다(마 5:3-10). 우리말과 달리 원어상으로는 '복 있도다 ~하는 자여' 하는 형식이다. 여기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화를 선포한다. '화 있도다 ~하는 자여' 하는 식이다. 몇 가지 화가 있는가?

**5 가지(6-8, 9-11, 12-14, 15-17, 18-20):**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문장의 중간에 있다.

8. 갈대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끝없는 욕심(5, 6-8):** 밀 빠진 독이다. 온 세상을 정복하여 공의로운 통치를 편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술을 즐기며 쾌활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이다. 권세와 부를 지니고서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 그럴 수 없다. 잘 하면 개인은 그럴 수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나 단체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이다.

9. 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무거운 짐일 뿐이다:** 큰 회사 사장, 대통령,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무거운 짐이다(7). 그러다가 내려앉게 되면 다 빼앗길 수도 있다(8).

10.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을 뭐라고 조롱할까(8)?

**까불 때 알아봤다(8, 10):** 행한 대로 당하게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 다.

11.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갈대아인들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자들이 왜 높은데 깃들이려 하는가?

**제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 도둑이 지은 집은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더 튼튼하게 짓는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정적을 처치하고 권력을 잡은 독재자는 결코 밭을 뺏고 자지 못한다.

12.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불의하거나 말거나 벌어놓은 것 잘 간직하고 있으면 평온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영혼의 평온함은 그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담의 들과 들보가 합창을 해대는데 무슨 평안이 있을까?

13. 피로 건축한 성읍은 불에 탈 것이며 불의로 건축한 성읍은 헛된 일로 곤비케 될 것이다(12-13) 어떤 나라와 대조적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나는 나라다. 1:17절의 질문에 대한 직설적인 대답인 셈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14. 친해도 한 잔, 성질나도 한 잔, 술이라는 게 참으로 요상한 것이다. 좋은 것이면 혼자 마시지 화가 난다고 술을 억지로 먹여서 뭘 하나?

**하체(수치)를 드러낸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억지로 먹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갈대아인들이 그랬다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음란을 조장한 것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16). 제대로 한 번 마셔 봐라!

15. 갈대아인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갈대아인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만세 전부터 계시는 주(1:12)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것(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음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이다(호 6:3, 잠 9:10, 사 11:9, 렘 9:24, 렘 24:7, 호 4:1). 어차피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나 불안정한 행복이다. 태풍이 불어도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은 행복일 뿐이다.

16. 갈대아인들의 잘못이 많기는 하겠지만 굳이 '레바논에 행한 강포'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은 갈대아인들이 행한 폭력과 학살에 대한 비유다. 레바논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참고, 사 14:8, 신 1:7, 수 1:4).

17. 우상은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한다. 뻔한 얘기를 굳이 여기서 되풀이 하는 의도가 뭘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20절과 대비시키려는 것이다.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일어나시면 하늘과 땅을 뒤엎을 것이니(3장) '파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 하박국 3장

1. 시기오눗(식가온의 복수)이란 리듬의 한 종류다.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이 리듬은 조용한 것일까, 아니면 정열적인 리듬일까?

**급격한 변화를 가진 정열적인 리듬:**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본문의 내용을 가사로 노래를 만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쉬운 예로 17절과 18-19절은 이미 복음송에 쓰였다(무화과나무 마르고 = 하박국의 기도: 주 여호와와 나의 힘 - 용기장이 노래). 조용한 노래가 아니다.

2.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내용인가?

**바라는 것은 2절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한 마디 하고 나머지 긴 내용은 찬미와 감사다. 어떻게 하시면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 이런 점은 한나의 기도와 흡사하다(삼상 2장). 이런 것이 올바른 기도 아닐까?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3. 하박국이 어떻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소문이란 떠도는 얘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소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신의 세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NKJV: I have heard your speech):** 다만 말씀하신 그 분이 멀리 계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모양이다. 번역자들의 고민이 담긴 말이다.

4. 하박국이 간절히 바라는 2절의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나 그 전에 불의한 자의 독세가 있을 것이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다만,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부흥이라는 말에 이끌려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표어로 쓰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뒷부분의 내용을 참고하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처럼 다시 한 번 역사하시기를 고대하는 듯하다.

5. 하나님께서 왜 데만이나 바란산에서 오실까? 민수기 10:11-12, 11:1-25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출애굽 때 나타나셨던 모습에 비유하는 것:** 데만은 예돔의 거주지다. 바란 광야는 더 남쪽으로 내려간 광활한 산악지역으로 이스라엘이 방향하던 지역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위엄으로 나타나셨던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6.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다(눅 2:14).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떨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찬송! 하나님의 위엄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며, 땅에는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36-4). 아무리 영광스런 모습이 펼쳐진다 해도 훗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계 4-5장)에 비하면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7. 예수님도 '산을 옮기는' 얘기를 하셨는데(막 11:23) 하나님께서 서시면 왜 산이 무너지는가? 산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걸까?

**영원함(6):**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불변, 안전, 위엄, 불가능의 상징이다.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절대적인 균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6절의 열국,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장막)! 보지만 해도 전율하며 무너진다.

8.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비유되고 있는가(6-9)?

**필적할 상대가 없는(6-7) 전사(8-9):**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는 온역, 불명이(5), 병거(8), 활(9), 창(11)이다. 화생방 무기에 하수와 해와 달을 조절할 수 있는 활과 창이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다.

9. 하나님께서 말을 달리고 병거를 몰면(8-11, 15)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가?

**강(= 하수, 바다):** 홍해를 갈랐던 출애굽 사건이나 요단강이 갈라지고 해와 달을 동원해서 원수를 무찔렀던 가나안 정복 시절을 바탕으로 우주적인 심판(5-15)과 구원(13a)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강이 제일 많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10. 광명, 온역, 불명이, 활, 창, 회리바람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회리바람:**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11. 하박국이 무얼 들었기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을까(16)? 3장에 사용된 단어 하나를 이용해서 답을 말한다면?

**소문(2):**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대한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1:12-17). 이제는 자기들을 치러오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16).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는 데도 기다리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12. 무화과나무가 왜 무성치 못할까?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까?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까?

**아마 갈대아인의 침략으로 말미암았을 것:**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말미암았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다. 빌 4:13과 동일한 맥락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 낙방, 퇴출, 부도, 암 발병...?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은 하나님

의 손 안이라는 것과, 최후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영장(伶長): 찬양대 지휘자